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한약관리규정(초안)의 문제점 ……3면
◉ 약초재배, 그 현장(제천군 덕산면) …4면
◉ 안덕균 교수의 본초이야기……6면
◉ 택사주산단지 송주균 해룡면……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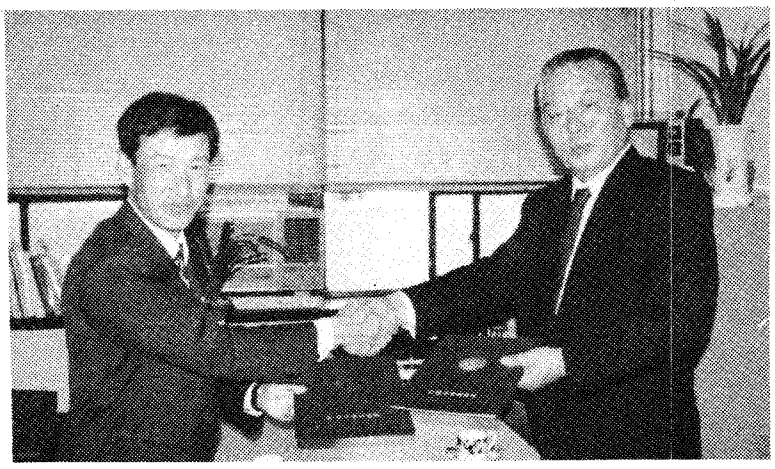
시호 인삼 길경

수출계약 체결

지난 23일 세웅산업(주)과 협회사무실서

재배면적 연차적 늘려나갈 터

고품질 생약 개발위해 공동노력키로



◇시호, 인삼, 길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교환하는 본협회 이종용회장(左)과 세웅산업(주) 구자춘회장(右).

한국생약협회에서 추진중인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23일 본협회 이종용 회장은 수출전문업체인 세웅산업(주) 구자춘 회장과 시호 1백㎏(3백만$), 인삼 10㎏(28만$), 길경 10㎏(8만$) 총 3백36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나가는데 합의했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약개발과 무엇보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 생약을 재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노력키로 했다.

외국산 약재에 밀려 우리생약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현실에서 이번 계약은 산하 재배회원들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협회 이종용회장은 『국내산의 가격이 중국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장기적인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생약재의 품질이 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일증한 셈』이라고 밝혔다.

세웅산업(주) 구자춘 회장은 『수입개방화와 함께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생약을 살리자는데 공감하고 시호에 이어 길경, 인삼도 계약재배 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생약의 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수출회사의 긍지』라고 덧붙였다.

세웅산업(주)은 지난 65년 이래 30여년을 꾸준히 생약 수출에 이바지해 온 견실한 수출전문업체로서 국내수출회사중 국산생약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 구자춘회장은 현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생협이 추진해 온 수출품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90년부터 계약재배 해오고 있는 삼도시호는 지금까지 총 1백20t을 수출, 수출액은 3백61만$에 달한다.

3년간의 시험재배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재배적지로 평가되어 현재 전라남도 96만3천4백92평(2천여 농가), 제주도 23만4천7백평(3백여 농가)에 삼도시호 생약재배 면적을 늘려나감으로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생약 살리기 차원에서 꾸준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생약재 대폭 오름세

산약 길경 당귀 등

햇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산 생약재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생약협회 중앙공판장(공판장장·남정학)의 조사에 따르면 9월28일 현재 4천5백원 하던 산약(식산약)이 1만3천원으로, 3천8백원 하던 길경(통)이 8천5백원으로 껑충 올랐고, 이외에도 당귀(토당귀)가 2천8백원에서 4천6백원으로, 향부자가 1천50원에서 2천원으로, 황금이 4천5백원에서 5천5백원으로, 강활이 3천5백원에서 6천5백원으로, 천궁(일등품)이 4천원에서 6천8백원으로, 백하수오가 9천원에서 1만3천원, 황기(小)가 4천8백원에서 5천6백원으로 생약재의 가격선이 전체적으로 대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약재의 가격이 이처럼 상승하게 된데는 올 여름 가뭄피해로 인해 전반적인 약초농사의 흉작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남아도는 재고량을 감안할 때, 이번 약재가격 폭등현상의 원인은 정작 다른곳에 있다는 분석이다.

올 한해 흉작으로 약재가격이 오를것이라고 예상한 생산자나 중간상들이 많은 양의 약재를 미리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전체수급 물량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얼마가지 않아서 곧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천마수입 절대반대

1천5백여 재배농민 반발

지난 8월18일 보사부가 작성한 한약관리규정(초안) 내용중 천마를 수급조절대상 품목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재배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에서 천마를 재배하고 있는 1천5백여 생산농가들은 천마수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관련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유희관씨(버섯연합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인공재배로 나오는 물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채취해서 사용하는 양만을 인식하고 천마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춘천군 서상2리에서 2천평 천마재배를 한다는 이근영씨는 『UR대책목으로 정부에서 권장, 보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수입천마를 들여 오고자 하는 처사는 누가 보더라도 농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농민들은 또 진정서에서 「관계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천마 수입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천마수입저지를 위해 전국 1천5백여 생산농가는 각 농민단체와 연대해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실제 생약협회가 파악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삭제품목 생산현황」중 국내 천마생산량과 수요량을 살펴보면, 92년 21t 생산 20t 수요, 93년 2백20t 생산 그중 수요량은 50t 정도이다.

따라서 천마는 국내생산량 만으로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천마는 한국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마로서 그 약효와 효능이 탁월하여 한방에서는 오래전 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와 자연조건이 맞지 않는 관계로 자연생은 거의 멸종상태에 이른 것을, 지난 85년 버섯재배 농민들에 의해 획기적인 천마 재배법이 개발됨으로서, 물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막대한 외화손실을 가져 오던 천마를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게된 것이다.

천마는 영지, 느타리, 표고버섯 보다 관리비용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해서, 무엇보다 실패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금은 농가소득 최고의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상2리 이근영씨 밭에서 캐낸 천마.

인사

「任」

전북지역

▲임실군 오수면 출장소장 이현재 ▲임실군 청웅면 출장소장 전두성 ▲임실군 운암면 출장소장 이순택 ▲임실군 임실읍 출장소장 한장현 ▲임실군 덕치면 출장소장 전점용 ▲임실군 삼계면 출장소장 양병규 ▲임실군 성수면 출장소장 양삼규 ▲임실군 강진면 출장소장 신영규 ▲임실군 지사면 출장소장 최낙윤 ▲무주군 안성면 출장소장 백상옥 ▲무주군 무풍면 출장소장 이주형 ▲무주군 설천면 출장소장 일준섭 ▲무주군 적상면 출장소장 황범용 ▲정읍군 이병기 외면 출장소장 ▲정읍군 칠보면 출장소장 최인균 ▲정읍군 옹동면 출장소장 강삼성 ▲장수군 장계면 출장소장 서한권 ▲장수군 장수읍 출장소장 이종천 ▲장수군 번암면 출장소장 고성문 ▲장수군 계북면 출장소장 김경철 ▲김제시 신풍동 출장소장 박태진 ▲남원군 보절면 출장소장 소승호 ▲남원시 죽항동 출장소장 봉금식 ▲남원시 동충동 출장소장 고문동 ▲남원시 천거동 출장소장 양재연 ▲남원시 노암동 출장소장 소영수 ▲남원시 금동 출장소장 박성수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출장소장 최칠봉 ▲전주시 완산구 전동 출장소장 이연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출장소장 양신수

〈2면에 계속〉